

2024년도 제16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16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24. 10. 17(목) 14: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2024년도 제16회 ARKO한국창작음악제(이하 아창제) 국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 45작품으로 초연부문 21 작품, 재연부문 24 작품이 접수되었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8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20%)에 두었으며, 다양한 형태(작품 성향, 구성 등)의 창작곡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심사 방식으로 악보와 미디어 음원을 사전 검토하였으며, 재연곡의 경우 제출한 영상 및 음원 자료를 검토하여 심의위원 개인별 심사 진행 후, 최종 작품 선정을 위한 토론 심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2024년도 ARKO한국창작음악제 작품공모에 참여한 많은 작곡가들의 참여에 경의를 표한다. 예년 대비 출품 작품의 수가 증가하여 선정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이번 공모 작품들의 전반적인 경향은 과거에 비해 국악관현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운드의 악기 배합에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였다. 종묘제례악이나 민요, 굿음악 등 전통적 음악 소스를 차용한 곡들도 의미있었던 반면, 작곡가의 예술성과 대중적 확장성의 미미함은 다소 아쉬웠다. 향후 예술성과 대중성의 중심에 국악관현악의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가 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악기의 개성이 잘 드러난 국악관현악은 공연 현장에서 관객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반응 또한 뜨겁다. 점차 작품들이 무거운 주제에서 소프트하고 일상적인 소재로 변화되어가는 점 또한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많은 작곡가들이 국악관현악 작곡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작품을 제출한 것은 고무적이었으나 심사 단계에서 일반 공연장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작품이나 실내악을 관현악으로 편곡한 작품 또는 서양 오케스트라 곡을 국악관현악으로 옮긴 작품들은 되도록 배제하였다. 동시대 국악 창작음악의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신선한 작품들에 심의의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제16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심의위원 일동